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새동구라파대회에서 1일 흥해작전 전개

그리스도를 위한 새유럽 도보행진도

체코슬로바키아 칼비나에서 가진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구라파대회'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대회이다. 외형적인 면에서 국제적, 초교파적, 복음주의적 대회였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 대회에 선교단을 파송했다는 것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충현의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윤 위임목사의 주제 강연 충현이 전 대회 기간 동안 계속 화제거리가 된 것만 보아도 성경적 교회 갱신이 얼마나 요청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대회 본부측의 요청으로 26일(금) 새벽 6시에는 “1일 흥해작전”을 전개하였다. 우리 교회의 흥해작전 모델을 제시하여 동구라파 교회에 기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었다. 선교단원 전원

이 전날 밤 늦은 시각까지 기도하며 구상한 이 작전은 또 하나의 충격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대회 본부는 이번 대회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하여, 동구라파 7개국 지도자들의 모임을 갖고 자국 지도자들의 연합 활동을 돕고 이단을 배격하며 복음주의적 신앙을 확산시키는 데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AD 2000운동의 이름으로 동구권 국제 총무를 세워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김치(KIMCHI) 동문이며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체코브 목사에게 그 책임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 중윤 위임목사는 그를 충현교회 선교사로 지원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동구권 지도자들은 충현교회의 헌신적인 참여에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국경

을 도보로 넘어가는 행진이었다. 이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국경과 이념과 종족의 담벽을 넘자는 신념을 갖게 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새유럽”이라는 프랑카드를 오색 찬연하게 만들어 세워주고 우렁찬 브라스밴드를 선두로 하여 경건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이 도보 행진은 쏟아지는 폭우를 오려려 무색케 하였다. 폴란드 땅으로 들어서는 승전감사에배가 드러졌다. 폴란드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루터파 교회에 입주의 여지가 없이 들어선 약 3천명의 성도들은 숨쉬기조차 두려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에 걸친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이 중윤 위임목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한국어로 애절한 기도를 드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정문 좌측에 웅장한 '비전2000기념비'가 이번 주에 세워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름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신 K집사님의 신앙적 헌신도 감사하고 빛도없이 이 기념비를 제작하신 Y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지구촌 복음화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 장소로서 외형적으로도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만큼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보완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면적 힘의 결집이 없이는 무의미하며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 마크인 물고기(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를 안고 하늘로 치솟는 이 장엄한 조형물은 충현인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세계가 있어 시간을 알려주는 때를 분별하여 대망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복음화를 긴급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충현의 신앙적 결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형물은 암송성경, 돌성경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3대 명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협력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 4

이 중 윤 목사

동구라파선교여행단 어제 귀국

지난 7월 15일 동구라파 선교를 위하여 출국했던 동구라파선교여행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8월 3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귀국에 앞서, 동구라파선교여행단원들은 7월 28일에 이번 선교여행을 결산하는 회의를 가졌

다. 29일에는, 이 중윤 위임목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4차 세계신약학회에 참석했으며, 김창인 원로목사는 뉘른베르크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육호기 선교사의 선교지를 순회하였다.

29일에 재현교회 개축 및 한용관 강도사 취임예배

우리 교회 지교회인 재현교회 개축 및 한용관 강도사 취임 예배가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 소재 재현교회에서 드려졌다.

우기전 장로(전도위원장), 송태근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전도위원 등 우리 교회 성도 30여명이 함께 참석한 이 예배는 우기전 장로의 사회와 김중복 권사의 기도, 송태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재현교회는 한나전도회 협의회



의 지원으로 개축되었는데, 한나전도회 협의회는 키보드를 기증하였다. 재현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교회 개축 등의 지원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새가족환영회 오늘 IV부 예배 후

새가족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6월과 7월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환영회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각 교구의 교구장, 지도교역사, 지역장 등 교구일꾼들과 상견례를 하고, 새가족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가족들을 인도한 성도들은 이들을 안내하여 함께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권사회 8일부터 수양회

권사회(회장 전순자 권사)가 오는 8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수양회를 개최한다.

송태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될 수양회에 권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70인전도대 제13기 대원 모집

금년들어 부활된 70인전도대 훈련이 충현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케 하는 가운데, 제13기 대원을 또 다시 모집한다.

“절대 믿음·절대 헌신·절대 훈련·절대 행동”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믿지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고, 결심된 영혼들이 다락방에 가운데, 제13기 대원을 또 다시 모집한다.

도록 한다는 기본 전략 아래 9월 3일부터 4개월에 걸쳐 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 훈련대상

- 충현교회 성도를 우선으로 한 모든 성도
- 복음에 열정을 가진 20세 이상인 성도
- 교구 목사의 추천을 받은 세례교인
- 전도활동에 지장이 없는 성도

◆ 훈련방법

- 훈련기간 : 9월 3일~12월 10일
- 훈련시간 :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5시
- 지원마감 : 8월 21일(수)
- 면 접 : 8월 24일(토)
- 훈련비 : 만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사무국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13:18~20)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세기의 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三重職)이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들을 직접 지배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미래 사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내 떡을 먹는 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닦아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손과 머리는 깨끗하니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을 보니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과 처지와 바라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항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다윗이 말한 자기를 대적한 가까운 친구는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왕관에 도전한 한 세제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여 여러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다윗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복 형제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고 하여,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자 그는 외가로 도망을 가서 3년간 피신했다가 돌아와서는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반감을 가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이때에 압살롬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후세와 함께 다윗의 큰 신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편에 있고,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에게 위장 귀순하여 압살롬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다윗을 치치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말을 따라가자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로서 왕을 반역하여 압살롬의 편에 서서 왕의 마음을 괴롭혔고 자기의 건의가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히도벨처럼,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쳐버리고 오히려 대적해버리는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히도벨이야말로 다윗의 상에서 떡을 같이 먹었던 자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먼저 화해, 화평,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원수와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을 같이 했다는 것은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인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과 주인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브비보셋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브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정을 변치 말고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름발이가 되어 고통당하는 요나단의 아들 브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 앉혔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같은 성찬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육신의 혈육을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었던 자들이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노라고 서약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들도 주님과 동역을 했고 3년동안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겠노라고 수없이 결심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발꿈치를 들어 버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2. 예언을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되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은 이 예언에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성경을 믿는 이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지

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지구는 두루마리처럼 말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약속도 변하고 결심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논리적이거나 위대한 말을 많이 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고 믿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안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암송시켜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 그래야만 악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와서 그 악을 잠잠케 합니다.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하고 생각하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알듯이 60년대에 있어서 복음적인 교회간에서 토론이 된 주제는 선교론과 교회론의 화였다. 대중 전도가 각 교파의 협력 체제 밑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주축이 각 교회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교회가 대전 후에 전도 운동을 전개하여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제 60년대에 와서 각종의 선교 단체나 신학교까지도 교회의 협력과 경제적인 기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위에 올바른 교회관의 확립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60년대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뿔뿔이 도시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지방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게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도시 교회는 별로 전도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현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도시 교회의 문제로 곧이어 등장한 것이 지방에서 온 성도들의 적응 문제였다. 지방의 가족적인 따뜻한 신앙 분위기 안에서 자라온 성도들의 눈에는 도시 교회가 너무나 기계적이고 냉담한 조직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교파의 난립이 심했기 때문

>특집<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일본의 기독교를 말한다(2)

심길웅 목사
(일어교육부 지도)

에 이사는 지역에서 같은 교파에 속한 교회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짐에 따라 신자들 가운데도 자기가 가진 믿음에서 사회적, 역사적인 의식의 기초를 찾으려는 지성적인 경향이 강해졌다. 신앙의 길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한 채, 많은 젊고 우수한 신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만 속수무책으로 앉아만 있지는 않았다. 위기 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꾸준한 노력의 결과, 각 신학교에서 유능한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해외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학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복음적이고 학문적인 실력 향상 노력의 결과가 《신개역성경》의 발간이

행과 《신성경주해》의 발간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본의 복음적인 교회들의 신학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성도들에게 신앙적 확신을 주는 데 기여했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게 하였다.

III. 결론

오늘날 일본 복음적인 교회들간의 유대의 줄은 “성경은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신앙”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요사이와 와서는 이 “성경신앙”이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하는 처지에 복음측은 서 있다. 성경고등비평 등 자유신학측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과오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신앙과 교리적인 면에 한해서만 과오가 없고, 역사

적, 과학적인 면에서는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큰 도전은 성령론에 대한 것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날 일본 복음측에 던진 성령론에 대한 도전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일본 교회는 대전 이후, 주로 해외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개척되었고 선교사와 일본인 교역자가 협력하며, 최근에 와서는 교회, 교단에서 미리 정해진 선교 계획 아래서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신학생의 수가 현재 점점 많아지는 희망적인 추세가 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힘을 키우고 현대문명, 일본문화 전체를 어떻게 복음 가운데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황 정립의 문제가 1974년 로잔회의와 관련하여 부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른 성경론과 교회의 공동성을 기초로 온 교회와 교파가 협력해 전국적인 규모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앞으로의 일본 교회의 발전 여부가 달려 있다.

■수양회를 다녀와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김기욱 학생(중등1부)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맞은 수양회인 만큼 나의 마음은 친구들과

그렇지만 둘째날 밤 부흥회 때 나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첫째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다고 투정부리고 닦하던 내가 이상하게도 둘째날은 설교가 길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예수님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아무런 죄없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과를 흘리셨다는 말씀은 정말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

다. 작년 수양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적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한두 방울씩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모두 떠올랐다. 친구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홍보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내가 주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전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의 기옥이가 아닙니다.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기옥이가 되었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생님. 학교 당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독교학생회를 조직하여 학교 안에서의 신앙 활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우회를 조직하여 기독교교사들을 모으고 주 안에서 형제됨을 확인하고, 교무실의 경직된 분위기의 변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등교하여 경건의 시간이나 기도 모임을 갖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바라기는 교회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기

독 교사를 통한 “주중(週中)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또한 기독교 학생이나 기독교 교사 신우회의 지원 활동으로 더욱 강화된다면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 학생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교사와 기독교학생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면, 교육 환경은 아름답게 되고 밝아지며 건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독자의 난

학원의 복음화



홍성주 집사
(학원전도회 회장)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과 남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심이 좋은 척 하는 학생이고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만 교회만 벗어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탕아일 뿐입니다.

저녁 10시쯤 성경공부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뿐만 아니라, 추악한 난무를 즐기고 길가는 여학생을 붙잡아 한적한 시간을 틈타서 2주일 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다.

(중략)

매일밤 일기장에는 이 가식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로 진실해지고 싶다고 쓰지만 여전히 교

회 생활은 엉망으로 되가고 교우관계도 형편 없습니다.”

이상의 글은 「기독신보」의 “상담교실”에 실린 어느 학생의 글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먼저 나 자신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

과연 이 학생의 상담 편지를 대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스러운 교회를 더럽히는 극소수의 이야기이니 큰 문제될 게 없고 남의 이야기이니 덮어두고 쉬쉬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교육의 관점에서 문제시 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현직 교사의 관점에서 이 학생의 상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

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부에 불려와서 벌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메시에 모범적이고 정직도 우수하며 장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독교 학생들을 위하여 주일에 교회에서만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교육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기독교교사들도 많이 있다. 학기 초에 담임한 학생들을 전원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조화와 중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졸업식날엔 기도로 앞날을 축복해주는 선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와 병행하여 8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열리는 비전2000운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1. 모두 함께 참여하자

충현의 모든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에 참여해야 한다. 방학기간이므로 초·중·고·대학생 자녀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전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다락방 전체 식구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현의 전가족이 총동원하여 참석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로 삼고 참여하자

이번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는 그 초점을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모은다. 이번에 어버이들과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게 된다. 2000년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3. 기도로 준비하자

이번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 기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기도의 불을 지피우며 이 기간을 맞이해야 한다.

4. 열흘간 온전히 기도의 열기 속에 지내자

새벽기도회 시간만 기도의 시간이 아니다. 새벽기도회를 향하

해놓고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기도회 시간을 마련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중심을 모아보자.

새벽기도회는 하루의 첫시간을 바친다는 뜻을 가진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해야 할 인격과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2000년대를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은혜 입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로 21세기를 맞이하도록 다같이 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리라.

비전 2000운동

새벽기도회에 임하는 자세

김 영 구 목사
(비전2000운동 부참모장)

자녀들이 비전과 가치관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할 귀중한 기회가 바로 이번 기도회이다. 충현의 가정마다 자녀 문제를 안고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받아 큰 은혜를 입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

가정에서 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구역 다락방에서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각종 모임에서도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로 준비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충현의 가족들은 모든 처소에서 서서히

여 나오는 발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고, 말씀 듣는 심령도 기도의 실령이다. 꼭조붙은 기도로 찬미를 부르고, 가사일을 하거나 공작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번 기회만큼은 시간을 정

루디아전도회 제7지회(회장 양승남 집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덕을 끼치고자 애쓰는 전도회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강서구 공향동에 살면서도 흥해작전이나 김치(KIMCHI) 세미나와 같은 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 때마다 교회로 달려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한다. 이들의 이러한 헌신적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집과 같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설교 테이프, 만나, 주간충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근로자들에게는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설교 테이프 등을 받은 근로자들은 테이프를 들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월례회를 할 때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는다. 세계를 우리들의 교

전도회 탐방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루디아전도회 제7지회-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교회까지 나오려면 거의 2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교회로 달려나와 교회의 구석구석을 청소해 왔다. 이것은 충현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성도들의 자기 위치 지킴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디아전도회 제7지회 회원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현재 현대건설 신우회를 통해서 해외 건설공사

구로 삼고 다각적인 선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은 교구 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루디아전도회 제7지회 회원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1년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봉사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1회 기독교사 수련세미나 8일에 열려

전·현직 유·초·중·고 교사들의 모임인 학원전도회(회장 홍성주 집사)는 오는 8월 8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배다디홀에서 제1회 기독교사 수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

었노라"(딤후1:11)라는 주제 아래 이진우 목사(송의여중교목)와 김용진 박사(충현교회 부설 사회봉사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이 수련 세미나에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현장

성령 충만한 영아부



32개 교회학교 가운데 최소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앙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아부(부장 김진채 장로, 지도 정원희 전도사)는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3~4세 유아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심어주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250명에서 300명의 유아들이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야맹회에서 모이는 영아부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50여명의 교사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받고 있다. 교사들은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어린이들이 은혜 가질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정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영아부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먼저 회원 증가면에서 그렇다. 어린이들의 전도에 의한 회원

증가가 불가능한 영아부는 그 부모들의 전도에 의하거나, 전반적으로 교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영아부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그림그리기, 공작놀이, 율동 등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아 교육에도 어머니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머니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영아부"라는 교육 목표 아래 신앙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영아부의 교사들은 "유아 시절부터 어린이들이 교회로 나와 또래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배우는 것은 유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3~4세의 어린이들을 영아부에 보내줄 것"을 모든 부모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강양의 소리

- ... 동구권선교여행단 무사히 귀국. 저를 나라도 속사도행전을 이어가게 하소서.
- ... 비전2000운동 준비한 창.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

- 해 새벽을 깨우리로다.
- ...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국내외 흩어져 있는 충현의 성도들이여,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다.